

칼빈神學의 基本原理

박 형 룡

칼빈의 신학적 교리들은 어거스틴 교리의 부흥(復興)이요, 어거스틴의 교리는 사도바울의 교리의 부흥이었다. 칼빈은 바울과 어거스틴의 교리들을 조직적으로 현대를 위하여 표현한 첫 사람이었다.

칼빈의 신학교리들은 하나의 통일체(統一體)를 형성하였다. 그의 기독교강요(基督敎綱要)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몇가지의 중요한 신학문제만을 논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신학의 전 체계를 형성하려한 것으로서 저자는 그 전체의 통일을 잊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기독교의 교리들을 개별적으로 거론(擧論)할뿐 아니라 그것들을 서로 관련시키고 다시 각개의 부분을 전체와의 관련에서 고찰하였다. 또 그는 신학 뿐만 아니라 철학까지도 그리고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총망라(總網羅)한 체계를 제시하려 하노라고 말하였다. 칼빈의 사상의 폭(幅)은 신학을 모든 학문의 여왕 이라고 생각하고 사상의 통일을 힘쓴 중세 스콜라 철학의 그것과 별로 다름이 없다고 논평된다. 어쨌든 칼빈의 체계화(體系化)하려는 경향(傾向)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으니 이것은 실로 그 감화력을 크게한 요소들 가운데 하나였다.

통일체로서의 칼빈신학은 칼빈이 주장한 교리들의 연락없는 총화(總和)가 아니라 하나의 특별한 기본원리를 공동토대로 가진 유기적(有機的)인 체계이다. 통일된 사상체계마다 한가지나 혹은 몇가지의 특성적인 기본 원리에 의하여 주관되나니 칼빈의 신학사상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그러면 이 신학사상의 공동토대로서 전 체계를 주관하는 특성적인 기본원리는 그 무엇인가? 이 문제를 해답하며 논의하는 것이 이 적은 논문의 목적이다.

一. 하나님의 주권

종교개혁시대(宗教改革時代)에 있어서 칼빈의 개혁신학(改革神學)은 하나님의 주권에 치중하는 것을 특성으로하여 다른 신학파들과 구별되었던 것이다. 개혁신학의 창시자(創始者) 스윙글리는 하나님의 의지를 신학의 중심사상으로 함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치중하였던 것이다. 그는 종교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의 의지를 준행하는 것이라 하고 그리스도의 사업을 말할때에도 하나님의 의지를 계시(啓示)한 점을 중히 여겼다. 스윙글리의 사후(死後)에 개혁신학의 체계를 대성(大成)한 칼빈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기본원리로 됨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칼빈신학의 중심은 예정론(預定論)이라고 말하는 데 있으나 사실에 있어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사상을 기초로 하여 철저한 예정론이 건설되었으며 기타 칼빈의 독특한 교리들이 조성(造成)되었다.

칼빈의 하나님의 주권에의 치중은 그의 의지의 무상권(無上權)강조로 표현되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의를 결정할 것이요 이유여하는 논할 바 아니다. 그는 말하되 『하나님의 의지는 의의 최고법칙이어서 그가 의지하시는 사물마다 단순히 그가 그것을 의지하신다는 사실에 의해서 반드시 의로운 것으로 여겨야 된다. 그러므로 주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고 묻는다면 그가 기뻐하신 때문이라고 우리는 반드시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더 멀리 전진하여 그가 왜 기뻐하셨느냐고 묻는다면 너는 하나님의 의지보다 더 크고 고상(高尚)한 무엇을 묻는 것이니 그런 것은 아무 것도 발견되기 불능(不能)하다』(기독교강요3편23장2절).

이 무상대권(無上大權)을 가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지에는 결코 전제(專制)와 무법(無法)이 있지 않다. 다만 우리 인생이 그 이유를 묻고 판단할 능력이 없을 뿐이다. 칼빈은 말하되 『그러나 우리는 전제권(專制權)(absolute power)의 가정(假定)에 찬성하지 아니함은 그것은 이교적(異敎的)이니 만

를 우리로서 공정히 미워함이 당연한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법(無法)하시리라고 상상하지 않는다. 그는 그 자신에게 율법이 심은 풀내토가 말하는 바와 같이 정욕의 감화력 아래 노력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수요하나 하나님의 의지는 모든 악으로부터 자유할 뿐 아니라 완전의 최고표준 모든 율법의 율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그의 진행에 대해서 변명하셔야 된다는 것을 부정하며 또 우리가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이런 사건에 판단을 내리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부정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연히 같것 보다 더 가려는 시험(試驗)을 받을 때에 이 고찰로 하여금 우리를 제지(制止)하게 할 것이니 즉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함이다(시五-4)[기독교강요상동장절(基督教綱要上同章節)]

이 무상대권(無上大權)을 가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지는 그 효능에서 필연적이다. 칼빈은 말하되 『그러므로 나는 어거스틴과 함께 고백하여 하나님의 의지는 필연이다. 그가 의지하신 매사는 필연적이어서 마치 그가 선전하신 일들이 확실히 생기(生起)(강요상동장8절)함과 꼭 같다고 하기를 주저(躊躇)하지 않을것이다.

동시에 하나님의 의지는 세계만사의 원인이다. 이 세계에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의지의 시킴이 없이 되는 것은 없다. 칼빈은 여기서도 어거스틴을 인용하여 진리를 역설하였다. 『어거스틴은 도처에서 가르치기를 무엇이든지 운명(fortune)에 버려두면 세계는 닳치는 대로 움직인다고 한다. —그 이유로 그는 또한 하나님의 의지밖에 아무 원인도 추구되지 말것을 보다 더 명백한 연사(言辭)로 좀 더 주장하여 나가면서 인생의지에 의지하는 우연을 제외한다. 그가 허용(許容)이라는 명사(名辭)를 쓸 때에 그가 그것에 붙이는 의미는 단 한구절(De Trinit. Lib. III Cop4)에 의하여 최선히 나타날 것이니 거기서 그는 증명하기를 하나님의 의지는 모든 사물의 최고 또는 근본적인 원인임은 아무것도 그의 명령이나 허용(Remission)없이 생기지 못하기 때문이라 한다』(綱要一篇一六章八節).

하나님의 의지는 은밀(隱密)하여 우리로서 알 수 없으나 그는 그의 공의와

지혜로 세상만사를 적당히 수습하신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만사만물의 절대적 주권자로 일하신다. 칼빈은 말하되 『우리는 반드시 조심하여야 되나니 하나님을 강압하여 설명하시게 하려는 뜻이 하지말고 그의 숨은 판단들을 숭경(崇敬)하여 그의 의지를 모든 이유들 중에 최선한 것으로 설명하도록 하여야 된다. 하늘이 뻥뻥한 구름으로 덮이고 사나운 폭풍우가 일어날 때 우리 눈에 나타난 폭압과 우리 귀를 때리며 우리의 모든 감각을 공포로 어지럽게하는 뇌성(雷聲)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이 혼란에 투입(投入)된다고 상상케하나 궁창(穹蒼) 자체에는 모든 것이 종용(從容)과 청량(淸朗)을 계속하고 있다. 동양(同樣)으로 인간사건들의 소란한 국면은 우리를 판단하기 부적당하게 만드나 우리는 오히려 마땅히 주장하기를 하나님은 그의 공의와 지혜의 순수한 빛에 의하여 이 모든 동요들을 적당히 굴복시키고 이것들을 이것들의 적당한 결말로 인도하신다고 할것이다. (강요1편17장1절).

二. 攝理에서 하나님의 주권

칼빈은 역설하되 섭리(攝理)는 하나님의 일반적 동작이나 감시로 구성되는 것 아니라 모든 사변들이 하나님의 비밀한 도모에 의하여 관리되며 그의 현재 손에 의하여 지도됨이라 하였다. 창조물들에 부여된, 성질들과 법칙들은 하나님이 의지하시는 대로 그것들에게 효능을 주입(注入)하시고 그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이런 저런 행동으로 전향(轉向)시키시는 기구들이다. 하나님이 태양을 머무르게 하신것은 (수一〇 13)『태양은 자연의 비밀한 본능에 의해 매일 뜨고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그것의 진정을 관리하여 우리에게 향한 그의 부친적총애(父親의寵愛)의 기억을 갱신하게 한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함이었다. (강요1편16장2절). 하나님의 전능은 헛되고 일없고 잠자는 가능성이 아니라 각개 판이하고 특수한 운동에 부절(不絕)히 힘쓰는 경계며 효능있고 공작하는 작인(作因)이다. 하나님의 특별 명령 없이는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으며 바람 한번도 불지 않는다(綱要 1篇

16章 7節). 매 년 월 일이 하나님의 새롭고 특별한 섭리의 관리를 받는다(綱要上同章節) 사변들이 혼이 우리에게 불의로 보이는 것은 그것들의 순서 이유 목적 필요가 하나님의 도모(圖謀)안에 숨고 사람의 마음에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아니라 그의 의지로 부터 나오는 것이다.

각개 특수한 운동에 하나님의 의지가 상해상동(常偕常動)한다는 이 주장은 단순한 허용의 관념을 제외하는 것이 현저하다. 특별히 사단과 악인의 죄악한 행동들과의 관련에서 하나님은 허용만 하신다는 가정으로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으려 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칼빈의 소전에서 이 허용의 관념에 귀의(歸依)하는 것은 난관을 회피하는 것 뿐이다. 대개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히 교사(敎唆)하시는 것 밖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며 그가 이전에 친히 작정하시고 그의 비밀지도에 의해 생기 하신바 밖에 아무것도 논의하며 숙고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수하고 명백한 성경구절들에 의해 증명된다.』 사람들에게 의해서나 사단 자신에 의해서 시도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의 모든 시도(試圖)들을 전환하여 그의 심판들을 집행하실 양으로 키를 잡으신다(要綱1篇18章1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지 대신 그의 허용을 말하는 것은 무용(無用)한 일이다.

그러나 칼빈은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造成者)가 아니시라는 것을 역설함에도 동등으로 강경(強硬)하였다. 아담의 타락에 관하여 그는 솔직히 말하되 나는 그것을 단언하되 결코 하나님이 그 조성자였다고 양보하도록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그의 예지(預知)와 작정(作定)으로 사람에게 관하여 되어질 바를 정명하시되 오히려 그 자신이 조금이라도 그 과실의 참여자로 되거나 범죄의 조성자나 시인자(是認者)로 뵈이 없게 하셨는가 나는 중언(重言)하노니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사람의 마음이 투입(透入)하기에 훨씬 너무 깊고 우리의 무식을 고백하기에 부끄럽지도 않을 것이 분명한 비밀이었다. 어느 신자든지 주께서 그 자신의 가까히 가지 못할 광채(光彩)속에 묻어두시는 바에 대한 무식(無識)을 고백하기를 부끄러워 말것

이다. (De Aeterna Dei Predesrine, as cited, cal. 315, 316). 칼빈은 또한 하나님이 사람들의 악행을 이용하여 자기의 거룩한 목적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그는 말하되 『대개(大蓋) 하나님은 악인들의 악 의지로 자기의 의지를 성취하신다』(綱要1篇18章3節). 악인들의 의지들과 동일 사변에 공작하는 하나님의 의지사이에는 전적 불일치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악인들의 악을 합법적으로 사용하심이 있다(綱要 1篇17章 5節).

칼빈이 본 섭리계(攝理界)에서는 이렇게 만사 만물이 다 하나님의 의지의 지도에 의지 하는 것이며 심지어 사람의 죄행이라도 하나님의 의지의 관리를 받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는 아니시며 죄를 이용하여 자기의 거룩한 목적을 성취하신다. 이것은 섭리계에 하나님의 주권의 절대적임을 말함이다.

三 영원한 예정 에서 하나님의 주권

칼빈은 생기(生起)하는 매사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作定)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다. 자연에 포함된 원인들의 영속한 상박(相縛)과 혼란으로 일어나는 필연(必然)의 스토아주의 교설을 거부하고 그는 역설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물의 재결자(裁決者)와 관리자 『가장 먼 영원에서 그 자신의 지혜로 그의 하실 바를 작정하시고 지금 그 자신의 권능으로 그의 작정하신 바를 집행하시는 자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언하기를 하늘과 땅과 무생창조물(無生創造物)들만 아니라 또한 사람들의 숙고(熟考)들과 결의들이 그의 섭리에 의해 관리되어 그것들이 정확히 선정된 목적에 향해 지도된다고 한다』(綱要1篇16章8節). 이리하여 아무 것도 의외로나 우연적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作定)과 능(能)하신 섭리에 의해 생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作定)의 일부로 사람의 구원에 관한 선택과 유기의 신적사역(神的事役)이 있어 영원한 예정(Predesinatins)이라 칭한다. 이 영원한 예정은 하나님의 자유롭고 절대적인 주권에 의하였다는 것

이 칼빈의 주장이었다.

선택(electin)의 사전에 관하여 칼빈은 역설하되 『신자들의 구원은 하나님
의 영원한 선택에 의지하나니 그것을 위하여 아무 원인이나 이유도 제출될
수 없고 오직 그 자신의 근거 없는 기쁘신 뜻 뿐이다』(De Aeterna Dei
Pycedestinatione, as Cited, Cal. 270, E. T., P. 44). 『하나님이 어떤 사
람들은 선택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유기(遺棄)하시는 때문에 그 원인은 다른
무엇에 하시는』 때문에 그 원인은 다른 무엇에 발견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자신의 목적에 발견될 것이다 (로마 9:14註譯). 칼빈은 하나님이 어떤 사
람들을 선택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유기 하심에 순전한 주권을 행사하셨다고
역설(力說)하는 성경적 강조의 세력을 회피하려고 하나님의 예지(預知)에 소
하는遁사(遁辭)를 기각(棄却)하였다. 그는 말하되 『바울이 언급하는 예지는
어떤 지혜 없는 인물들이 무리하게 상상하는 것 같은 단순한 전식(前識)이
아니라 오직 수양(收養)(adoption)이니 그것에 의하여 그가 항상 그의 자녀
들을 유기된 자들로 부터 구별하셨다』(로마八—29 註釋). 로마 八—29 의
하나님이 미리 아신자들을 『미리 정하셨다』고 한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사
람들에게 믿음이 있을 것을 예지(預知)하신 때문에 그들을 구원 얻을 사람
들로 선택하셨다는 의미로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성구의 미리 아신
(프로기노스케인은) 사람을 애적관심(愛的關心) 혹은 선택애(選擇愛)의 대
상으로 삼는 것을 의미하고 그의 상태를 선견(先見)함을 뜻하지 않는다. 칼빈
은 이 선택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양자(養子)삼는 것이라고 표현한 듯하
다. 하여간 그는 구원 얻을 자의 선택에 그의 선견된 신앙이 조건으로 되었
다는 견해를 엄준히 배척하고 하나님의 자유롭고 절대적인 주권을 철저히
옹호(擁護)한 것이 분명하다.

선택이 그리스도안에서 되었다는 것을 칼빈은 충분히 인식하였다. 그러나
칼빈의 사상에서 이 사실은 선택자체의 순수주권성(純粹主權性)과 특수은혜
성(特殊恩惠性)(particularism)에 조금이라도 간섭이 아니었다. 반대로 그
는 솔직히 말하기를 이것은 「선택은 자유라」는 것을 확실케 함이니 『왜 나하

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안에서 뽑혔으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예베소 1:4) (註釋).

예정의 제二부인 유기(遺棄)(reprobation)에서도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였다. 칼빈은 어거스틴에 소하여 말하되 그는 『선택의 시작을 하나님의 근저 없는 의지에 추적하고 유기를 또한 그의 의지 만에 배치한다』 하였다(De Aeterna Dei Predestinatione, as cited, 267). 칼빈은 로마서 9 장 주석에서 말하되 『불경건자(不敬虔者)는 반대하여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의 구원에나 그들의 멸망에나 제 일위를 점령한다면 사람들은 책임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바울은 이것을 부정하는가? 아니다. 그는 그의 대답으로 이것을 확실히 하기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관하여 그에게 선택하시는 대로 결정하시나니……대개 그는 자기의 권리로 어떠한 운명이든지 그가 기뻐하시는 것을 그가 형성하시는 바에 지정하신다』(로마九—20 註釋) 『언약(言約)의 행복(幸福)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모든 백성들로 부터 분리하는 것같이 하나님의 선택은 그 민족안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구별을 지어 어떤 사람들은 구원에, 다른 사람들은 영원한 정죄(定罪)에 예정(預定)한다』(로마 九—11 註釋). 『바울은 가르치기를 악자의 파멸은 주께서 선견(先見)하실 뿐 아니라 또한 그의 도모와 그의 의지에 의해 정명(定命)된다 한다. 솔로몬은 같은 것을 가르치기를 악자의 파멸은 선견될 뿐 아니라 악자(惡者) 자신들이 바로 이 목적을 위해 그들이 망하기 위해 창조되었다』고 한다 (잠 一六4) (로마 九:18 주석).

유기(遺棄)에 관한 다른 한가지 요의(要義)는 이것이 포함하는 영원한 정죄(定罪)는 죄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가 유기(遺棄)의 기원(起原)과 설명임에서는 선택의 경우에서와 다름이 없다. 그러나 유기에 포함되는 정죄는 죄에 근거한다는 사실이 간과(看過)되어서는 안된다. 칼빈은 말하되 『비록 하나님의 비밀한 예정이 제일의 원인이요 다른 모든 원인들보다 우월(優越)할지라도 불경건자(不敬虔者)의 부패와 악함은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이유와 기회를 준다』(로마九30 주석). 『유기의 근인(近因)이 있다

는 것이 과연 참되니 우리가 다 아담안에서 저주(咀呪)받은 때문이다』(롬 九11주석).

四. 구속(救贖)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인류의 구속이다. 이 구속하는 일은 순전히 이성적 창조물을 상대로 하는 것이니 만물 하나님의 주권에 어떤 제한이라도 있지 않을까? 아니다 이 일이 영원한 예정에서 계획될 때 벌써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아래 된 것 같이 현실 세계에서 실시됨에도 역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 기초한 칼빈의 소신이었다. 신학체계의 대부분에서 논의의 대상인 구속사역(救贖事役)의 어느 계단(階段)에서나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이라 함이다.

(1) 사람의 전적패괴(全的敗壞). 사람은 아주 타락하였으므로 선행은 할 수 없고 범죄에만 경향하게 되었다. 사람의 이같이 타락한 참상은 하나님의 정하신 바요 하나님의 초자연적 사역에 의한 변화가 아니므로 고쳐질 수 없다고 하였다.

칼빈은 인류는 범죄타락한 결과로 그 본성이 전적으로 패괴(敗壞)하여 우리의 본성에는 선한 성품이 전혀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악이 무성(茂盛)하여 방심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강요 2편1장8절). 사람의 의지는 선으로 향해서 전진할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실지에 있어서 죄의 노예이며 강렬한 열정을 가지고 죄로 기울어지고 죄로 다름질치고 있다고 말하였다. 일단 자유를 잃어 버린 의지는 할 수 없이 악으로 이끌려 간다(강요 2편2장5절).

그런데 사람이 이런 상실(喪失)된 처지에서 번잡(繁雜)하게 된것은 온전(穩全)히 하나님의 뜻이다. 『전염의 원인은 육의 본체나 영혼의 본체나 있는것이 아니라, 첫번 사람에게 주신 천부(天賦)를 자기와 자기자손에게 대해서 소유하였다가 상실하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정하여진 것이다』(강요2편1장7절). 다시 말하면 타락과 그 결과도 선택이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

나님의 원작정(原作定) 가운데 있다는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타락한 참상에서 고쳐지는 것도 하나님의 초자연적 사역에 의한다. 『사람이 은혜의 도움과 태함을 받은 사람들이 중생할 때에 받는 하나님의 특별 은혜의 도움 없이는 선행을 위한 자유의지를 소유하지 못한다』(강요 2편2장6절). 하나님의 영은 약한 의지를 도와줄 뿐 아니라 그것을 새로 지으신다(강요 2편3장6절).

(2) 은혜적구원(恩惠的救援)과 제한적속죄(制限的贖罪). 구원은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다. 성부 하나님이 구속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그것을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실시하시어 심령을 중생 시키신다. 칼빈은 말하되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동력인은 우리에게 향한 천부의 긍휼(矜恤)과 무상애(無償愛)라고 성경이 일양적(一樣的)으로 선포하고 질료인(質料因)은 순종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의를 사신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리고 형상인(形相因) 혹은 기구인(器具因)은 신앙밖에 무엇일가?』(강요 3편14장17절). 그는 성령의 사역에 관하여 말하되 『이제 성경의 많은 구절들은 보여주기를 그는 중생의 조성자니 빌어온 정력(正力)으로가 아니라 내재적 정력으로며 그뿐 아니라 그는 또한 장래영생(將來永生)의 조성자라 한다』(강요 1편13장14절). 그는 살후 2—13을 인용하고 말하되 바울은 『이 구절에 의하여 간단히 우리에게 깨우치기를 신앙 자체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산출된다고 한다(강요 3편1장4절).』이리하여 구원은 전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달린 것이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범위(範圍)에 관하여 그것은 제한적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어거스틴주의 스콜라 신학자들의 양식(樣式)에 따라 요일 2:1의 석의(釋義)에서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총족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나 효능적(効能的)으로는 피택자만을 위하여 죽으셨다』하였다. 이 제한 속죄의 교리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효능을 적용하는 범위를 하나님이 결정하신것을 말하므로 그의 은혜로우 심과 함께 그의 주권의 절대적임을 강조한다.

(3) 불가항적은혜(不可抗的恩惠). 그리스도의 순종과 수난(受難)의 공로

는 모든 사람에게 제출되는데 왜 혹자는 구원얻고 혹자는 멸망하는가? 하나님이 이 차별을 나게하시고 혹자를 실효적으로 부르신다고 하는 것이 칼빈 신학에 의한 답변이다. 하나님의 이 소명(召命)을 유효적소명(有効的召命) 혹은 불가항적은혜(不可抗的恩惠)라 칭한다.

칼빈은 소명을 논함에 있어서 먼저 보편적 소명을 말하고 연하여 말하되 『이 밖에 또 하나는 특수적소명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대개 신자들에 제만 주시며, 성령의 내적조명(內的照明)으로써 전도된 말씀을 그들의 가슴 속에 뿌리박게 하신다』(강요 3편24장8절). 그는 또 말하되 『주께서는 그의 소명의 유효성에 의해서 그의 선택자들에게 예정했던 구원을 성취하심 같이 피기자(被棄者)들에 대하여는 그들에 관한 그의 도모(圖謀)를 집행할 심판을 가지신다.』(강요 3편24장12절). 이 유효적소명(有効的召命)은 피택자(被擇者)의 영혼을 중생, 회심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은혜의 불가항성을 함의(含意)한다. 이를 다른말로 표현하면 주권적 은혜라 할 것이다.

(4) 성도(聖徒)의 견인(堅忍). 칼빈은 그리스도께 속한 듯한 모양을 보 이다가 반역하고 타락하는 사람은 참으로 선택되지 아니하였던 것임을 밝혔다(요일 2—19). 그리고 그는 말하되 『그러므로 이 종류의 실례들로 하여금 주에게 참된 신앙으로 수납(受納)된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셨다고, 또는 그가 그들의 지로자(指路者)와 목자이신 동안 그들중의 아무라도 망하지 아니 하리라(요 3:16 6:49) 주께서 선언하신 때의 그의 약속에 대하여 가지는 침착(沈着)한 확신으로부터 우리를 옮겨가지 못하게 하라』(강요 3편24장7절). 이 구절에서 칼빈은 성도의 견인(堅忍) 혹은(或) 궁극구원(窮極救援)의 교리를 말한것이다. 성도의 견인은 신자안에서의 성령의 계속적공작이니 이 공작으로 신적은혜의 사역이 심정에 시작되고 계속되며 완성에 달한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을 도무지 버리지 아니 하시는고로 신자들이 끝까지 계속하여 확립한다(요10:28—29 롬11:29 빌1:살후3:3 딤후1:12 4:18).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선도하여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함은 역시 주권적 은혜의 일을 말함이다.

칼빈신학의 기본원리로서의 「하나님의 주권」이 그 신학 전체계(全體系)의 각부분에 주도(主導)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몇 제목 아래 논의되었다. 논의의 본격적인 부분은 주로 후대에 칼빈주의의 오요점(五要點)으로 알려진 절대적예정(絶對的預定), 전적패괴(全的敗壞), 제한속죄(制限贖罪), 불가항적은혜(不可抗的恩惠), 성도의 견인에 관하여 전개되었다. 이 오요점(Fire points)은 칼빈 자신이 지명하여 성명(聲明)한것이 아니다. 17세기초기 화란(和蘭)에서 알미니안주의의 반항에 당면한 뮐트대회가 작식(作式) 선포한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기본원리는 칼빈자신의 신학체제에 이 오요점(五要點)을 이미 충분히 설치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증명하였다.

이렇게 구속의 계획(計劃), 실시(實施), 완성(完成)에 이르는 전 과정에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주도한다는 사실은 구속에 실패 없음을 보증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궁(無窮)한 위안과 격려(激勵)를 준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깨우쳐 거룩한 생활에 근면하게 한다. 『바울은 우리의 선택의 목적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생을 가지기 위한 것이라 한다(에베소 1,4). 만약 선택의 목적이 거룩한 생활을 하는 데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기쁜 마음으로 거룩한 생활을 실천 하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고 자극해 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강요 3편23장12절).